



이재명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 제조업전략 A부터 Z까지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9.4 [대통령실통신사진기 제공]

5대 추진전략 보고받아 방산·우주·AI 분야 등 추가로 고민해달라

장바구니 물가 출렁...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제도와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

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 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저 '남보다 빨리하자'거나 '잘 따라가자'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산업을 선도할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비서진으로부터 제조업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5대 제도와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가 이뤄진 뒤 방위 산업을 비롯해 우주·위성·통신 산업 전략이 빠져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총괄하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데, 이 유통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채봉 기자

"美 관세 부정적 영향 본격화" 7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지만

107.8억달러 흑자 상품수지도 102.7억달러로 7월 기준 3위

여행 등 서비스수지 21.4억달러 적자 배당소득수지 25.8억달러 흑자

케데헨' 효과, 굿즈 판매·여행 수요·식품 수출 등으로 파급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등과 함께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천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6월(14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천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천만달러)보다 약 22% 많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5~7월 3개월 연속으로 흑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상회했다"며 "금년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송 부장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도 미국 이외에 유럽연합(EU), 호주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 영향은 있으나, 수출이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천만달러)가 월 기준 역대 3위였던 6

월(131억6천만달러)보다 약 29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작년 7월(85억2천만달러)보다는 약 18억달러 늘어 역대 같은 달만 비교하면 세 번째로 많다.수출(597억8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보다 23% 불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두 달 연속 증가세지만,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통관 기준으로 특히 반도체(30.6%)·승용차(6.3%) 등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컴퓨터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서 고전했다.

수입(495억1천만달러)의 경우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지만, 전월보다 에너지류 수입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작년 7월보다 4.7% 축소됐다.

반대로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5억3천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23억9천만달러)보다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9억달러)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따른 외국인 국내 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10억1천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29억5천만달러)는 6월(41억6천만달러)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 배당소득수지가 34억4천만달러에서 25억8천만달러로 뒷걸음친 데 가장 큰 영

향을 받았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외국인 국내 여행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헨)' 영향과 관련, "케데헨 효과가 여행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어서 관련 효과는 크지 않지만, 굿즈 판매라든지 여행 수요, 식품 수출 등으로 다양하게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8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1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2천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76억4천만달러 늘었다.

이현진 기자

강릉 최악 가뭄에 정부,

소방·군·독도경비함 투입

강릉 지역에 최악의 가뭄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국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작업을 펴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꾸렸다.현장지원반은 이날 1일부터 강릉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 뒤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차 71대를 강릉에 집결해 급수활동을 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5천여명 독도경비함 상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의 물을 강릉시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경기 화성, 인천, 대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도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응수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시의의회
청렴은 가결!
부패는 부결!

서울시의의회는
어떠한 청탁도, 부정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98(무료) / 국민콜 110(무료)